

“익산인구 28만 사수한다”

익산시, 끝장토론… 호남3대 도시자존심 지키기 나서
일자리·정주여건 조성 등 분야별 정책 아이디어 제안

익산시가 인구 28만 명 마지노선을 사수해 호남 3대 도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양질의 일자리와 머물고 싶은 정주여건 조성, 육아·교육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전 시민들이 인구증가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최근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끝장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기 위해 일과 후 오후 6시부터 시간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인구정책에 대한 진단과 함께 분야별 각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밤 10시까지 열기를 이어갔다.

간부 공무원들이 제안한 주요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머물고 싶은 주거·정주환경, 출산·육아·교육 환경 조성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압축됐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는 임금 격차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보전 방안, 중소기업 임산부 근무시간 단축 지원, 문화·예술 종사자 일자리를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개선 등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주거·정주환경 분야는 신규 아파트 공급 시 거주자 우선 공급, 임대아파트 뿐 아니라 분양아파트까지 신혼부

부·청년 주거 지원 확대, 권역별 테마적용 관광 아이템 개발, 은퇴자를 위한 연어 프로젝트,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한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의 의견이 나왔다.

출산·육아·교육환경 분야는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추진 시 도서관과 놀이터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컨셉 추가, 공원마다 특색있는 조경 적용,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등이 제안됐다.

이 밖에도 직원들과 시민들이 인구 진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인구 늘리기를 추진한 유공 시민

인센티브 기업·단체·군부대 집단 진입 장려금 개선 등이 거론됐다.

시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관련 부서와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해 중장기 인구정책을 체계화하고 시장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행정 정책과 함께 전 시민들이 28만 인구 지키기에 뜻을 모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기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바른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들이 인구증가에 대한 관심과 동참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인구 28만 마지노선을 지켜내고 호남 3대 도시 위상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시민·사회단체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28만 인구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은 최근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끝장토론을 진행했다.

미국 뉴저지주 하원의원, 군산시장 초청

판로 개척·경제관계 상승효과

군산시가 미국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판로 개척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농식품 업체들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뉴저지주 하원의원 로버트 아스는 김임준 군산시장에게 초청장을 전달하며 현재 미국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군산시의 기존 상품 외에도 추가 판로 개척과 경제관계 상승효과를 노리게 됐다.

시는 지난 10일 지역 농수산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바이어 1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미국 뉴저

지주 시원그린라이프 대표 대니박은 수출 전략 등을 설명하고, 전라북도 농수산물 수출업체인 (주)제이앤에스글로벌 송미령 대표와 직접 제품 상담 및 판매 업체의 수출 가능성을 검토해 일부품목은 바로 선적을 요청받는 등 상황을 이뤘다. 또 이날 대니박 대표는 군산시장을 내방, 군산 농식품 수출에 관해 환담하면서 미국 뉴저지주 하원의원인 로버트 아스의 “군산시에 서 생산되는 여러 제품이 현재 뉴저지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향후 군산시와 뉴저지 사이의 경제 관계 성장과 발전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군산시장에서 뉴저지주를 방문해 직접 만나 서로 협력하고 싶다”는 네

용의 초청장을 전달했다.

김임준 시장은 “지금은 어렵지만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 시기에 뉴저지주와 군산의 농식품을 통한 호혜 관계를 이어가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뉴저지주 소재한 시원그린라이프는 지난 2013년에 설립된 유통전문회사로 한국의 가공식품을 미국 현지 시장에 유통하고 월마트 및 미동부 체인 400여개 매장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대니박 대표는 현재 전라북도 국제교류 자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군산출신 사업가로 군산을 포함한 전북 농수산식품의 수출상당과 수출품 확인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스마트한 교통환경 ‘쟁걸음’

국토부 ITS 구축 사업 선정… 국비 30억원 확보

익산시가 교통체계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도입해 스마트한 교통환경 구축에 나선다.

시는 14일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1년부터 2년간 국비 포함 총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교통정보 수집·제공시스템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신호 운영을 위한 첨단신호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익산대로와 무왕로, 선화로, 군악로, 중앙로, 변영로, 은기길 등 37.1KM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는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과 제공 및 신호 제어시스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주차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해 첨단 교통신호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스템 운영으로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이고 교통 체증이 감소되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교통체계(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교통체계에 정보, 통신, 제어, 전자 등의 지능형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교통시스템으로 교통체계의 운영과 관리를 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정현을 시장은 “ITS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도로분야 SOC 디지털 사업으로 교통정보제공시스템과 첨단신호시스템이 도입된다”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스마트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국내 첫 ‘익산 온라인 식품대전’ 성황

4억원 넘는 판매실적 달성

국내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익산온라인식품대전’이 약 4억원이 넘는 판매실적을 달성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식품대전에서 진행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푸드마켓 외 3곳의 온라인 쇼핑물 기획전을 통해 1억2,000여만원의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

이어 온라인 수출 상담회에 10여개사가 참여해 50여억원의 상담 실적과 약 3억원의 현장 계약을 체결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식품대전은 지난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됐으며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유튜브 제품 라이브, 홈페이지 온라인 방송 등을 통해 총 27만여 건의 접속자 수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전국의 축제가 취소 또는 연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축제는 최초로 온라인 진행에 도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축제 진행 방식을 개척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으며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식품=익산’이란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정현을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축제 방법에 도전했고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식품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익산시는 앞으로도 시대에 앞서가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추석연휴 ‘내고장 둘러보기 캠페인’ 추진

정현을 익산시장이 14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번 추석연휴가 시민들에게 지역을 알릴 절호의 기회다”고 강조하며 “연휴 동안 내고장 둘러보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 시장은 “익산에 가볼 만한 곳, 먹을만한 것들이 아주 많은데 정작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타지방 방문 자제를 적극 독려하는 가운데 집에만 있기 답답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내 고장을 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현을 시장은 28만 인구 사수를 위한 인구정책을 행정과 시민·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 필사의 각오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시장은 “지난주 간부들과의 인구정책 끝장토론을 통해 도출된 새로운 대안들을 토대로 앞으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인구 28만 사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28만 인구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청소년 비대면 자몽 확대

군산시가 청소년 비대면 자원봉사를 확대 추진하며 청소년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인해 위축된 청소년 자원봉사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다양한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에 물품지원시 손편지를 동봉하는 ‘코로나19 극복·사랑의 손편지 보내기’와 비대면 강의로 진행해 직접 손소독제를 만들어 전달하는 ‘사랑의 손소독제 만들기’가 9월 중 시행 예정이다.

또한 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4가지 주제(코로나 out! 거리두기, 마음거리 좁히기, 마스크 착용 홍보, 코로나19 관련 영상 제작)의 V-스몰스텝 캠페인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군산사랑 마을사랑 청소년’ ‘청소년스쿨 무한도전’, ‘신규 자원봉사자 온라인교육’ 등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들도 진행 중에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 추가

군산시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산시 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차량 등의 어린이통학차량 중 노후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7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1대당 5백만원이 정책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사는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차량(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서대로 선정한다.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